

# “북녘동포 생각하며 걸겠습니다”

## 세계평화 도보행진 나서는 원공스님

“우주의 이치에서 보면 ‘오라’ ‘가라’ ‘하라’ ‘하지 마라’ ‘여기’ ‘저기’가 다 무의미합니다. 걷는 데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걸음 북녘동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無門關)의 마지막 6년 면벽수행자인 원공(圓空) 스님이 이번에는 ‘세계평화 도보대행진’에 나선다.

3월 1일 인천에서 출발해 남해안을 거쳐 6월 30일 동해안 통일전망대까지 약 90일간 해안도로를 걸어서 순례하는 세계평화도보대행진은 세계평화와 북녘동포 돕기를 위해서다.

대한적십자사와 국내 모 일간지 주최로 진행될 이번 90일 도보대행진은 원공

3월 1일 인천 출발 서해·남해·동해안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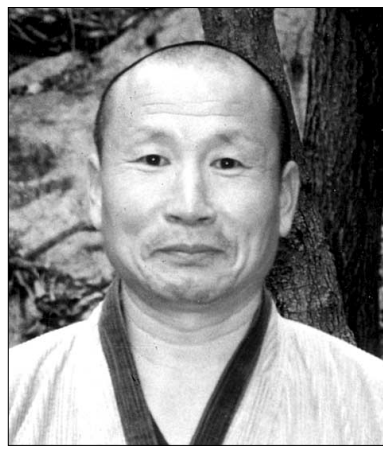
‘걷는 것이 곧 수행’...한해의 절반씩 걸어

스님의 제안에 의해 이뤄졌다. 전국 해안 도시들을 돌며 국민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쓰레기 줍기도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는 타종교 성직자도 참여할 예정이다.

“걷는 것이 곧 수행”이라는 화두를 삼고, 25년간 1년의 절반 이상 만행(萬行)을 하면서도 한번도 차를 타지 않은 스님은 “우리 산하를 걷는 것은 수행자로서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그 괴로움의 원

인을 해결하기 위해 행하는 기도”라고 말한다.

한편 원공스님이 북한돕기 및 환경살리기 도보 수행을 시작한 것은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에서 면벽수행을 끝낸 지난 79년부터다. 도봉산 곳곳에 묻힌 쓰레기를 캐내던 스님은 뜻을 함께한 불자 및 산악인들과 ‘산에 도라지 심는 사람들’을 구성, 통일발원 북한동포돕기 국토순례 등에 나섰다. 그동안 1백55마일 휴전선



원공스님

순례, 통일기원 1백80일 국토 순례, 이산가족 고향 자유왕래 염원 2백20일 순례, 통일염원 북한 농민을 위한 비료지원 모금 123일 백두대간 종주 등을 해왔다. 이를 통해 북한에 지원한 금액만도 수천만 원이나 된다. 지난해에도 스님은 한·일 월드컵 성공개최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2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원 12명과 상암경기장을 출발 축구경기가 열리는 도시와 20개 경기장을 하루10시간 총 4000km를 도보 순례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nia.com

### 우리 걸 우리 신도

## 절일 생기면 밀어붙이는 ‘탱크’

용암사 거사림회 고창환 거사

“어서 오세요, 보살님.”

성도재일을 사흘 앞둔 7일 서울 중구 동 용암사(주지 효성) 요사채. 문을 열고 들어오는 노보살을 부축하며 반갑게 맞는 이가 있다. 용암사 거사림회 고창환(법명 도희, 62) 거사다. 성도재일 행사를 신도들과 함께 준비하며 혹시 불편하거나 부족한 것이 없는지 꼬박꼬박 챙기는 고 거사. 고 거사는 어느새 보살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있었다.

“소리 없이 강하다.” 용암사주지 효성 신도들은 고 거사에게서 이런 감정을 예외 없이 느끼곤 한다. 평소에는 말이 없다가도 사찰 일만 생기면 저절적으로 밀어붙이기에, 신도들은 ‘탱크’란 별명까지 붙여주었다.

별명처럼 고 거사의 첫 인상은 과묵했다. “제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스님이 하란 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합니다”는 고 거사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무슨일이 있겠느냐”며 한사코 손사래를 친다. 하지만 용암사에서 고 거사는 없어서 안

될 사람 일순위로 꼽힌다. 사찰 일이란 게 주인 의식을 갖고 누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스님들이 하기에 박찬 일이나 신도회에서 하기 까다로운 일, 거사림회에서 하고 싶은 일은 모두 고 거사의 손을 거쳐 무리 없이 진행된다.

고창환 거사가 용암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금부터 10년 전. 고 거사의 급한 성격을 격정한 부인 이성선(61)씨가 매일 출근하는 남편에게 함께 사찰에 다니자며 삼배를 올리면서부터다. “처음에는 절에 다니더니 뭘 잘못 먹어 저러나 했다”는 고 거사는 몇 달이고 이어지는 간절한 아내의 정성에 감복, 용암사를 다니기 시작했다.

아내 이 씨는 “이제는 누구보다 열심”이라며 자랑스런 미소를 내보인다. 함께 절에 나가는 것도 고마웠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기도와 예불, 독경을 거를 때가 없는 남편 고 거사는 이 보살에게 너무 든든한 동반인 것이다.

하루 10시간씩 택시 운전해 해야 하는 고 거사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끊임 없이 찾는 것을 잊지 않는다. 고 거사는 “택시 손님을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대하다 보면 과거의 내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울 뿐”이라고 말한다.

“별별 사람도 다 만나도 이제는 상대하지 않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슬며시 웃음이 난다”는 고 거사는 올해부터 실천할 예정인 불우이웃돕기 봉사를 앞두고 벌써 가슴이 벅차 있었다. 강유신기자

택시운전하며 손님 부처님 모시듯

올해부터 불우이웃돕기 나설 계획



7일 고창환 거사가 용암사신도들과 함께 성도재일 행사 안내지를 봉투에 담고 있다. 왼쪽에 앉은 이가 평생 동반인 아내 이성선 보살.



추천의말

효성스님 용암사 주지

고창환 거사는 평소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한 사람입니다. 늘 가장 뒤편에 서서 묵묵히 기도와 예불을 올리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행사 뒷일 도맡아 처리

하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가장 먼저 출선 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기적인 사찰 행사의 뒷 처리는 고 거사의 몫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암사에 고 거사를 비롯한 신심 깊은 불자들이 많다는 사실에 늘 사찰 따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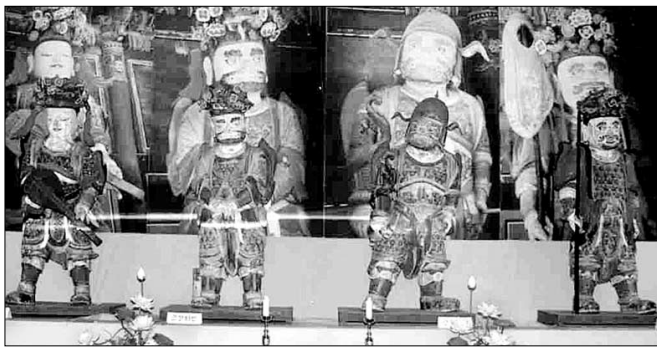
## 템플스테이 내·외국인 여행상품화

전남도청, 롯데관광과 함께 3월까지

전남도청 관광진흥과는 롯데관광과 손잡고 15일부터 3월까지 지난해 한일월드컵 때 선보였던 ‘템플스테이’를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했다.

1박2일 일정의 ‘산사문화체험’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두차례 서울에서 출발한다. 해당 사찰은 해남 미항사와 대흥사를 비롯해 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 장성 백양사 등 다섯 곳이다.

오전 8시30분 서울을 출발, 저녁 공양 후 예불과 점심을 한 뒤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든다. 이튿날에는 새벽 3시30분에 일어나 도량 석과 아침예불, 참선을 한다. 아침공양 이후 강의가 이어지며, 근처의 암자나 산행을 한다. (02)733-0201 김주일 기자



봉은사 목사천왕입상(서울시 유형문화재 160호).

## 봉은사 목사천왕입상 등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서울시는 최근 봉은사 목(木)사천왕입상(1746년)과 금선사 신중탱화(1887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금동보살좌상(여말선초 추정) 등 3건을 시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시보에 고시했다. 나무로 조성된 봉은사 사천왕상 4구(서울시유형문화재 160호)는 다량의 복장유물이 출토돼 18세기 복장과 목조 불교조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았다.

서울시유형문화재 161호로 지정된 금선사 신중탱화는 서울지역 사찰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 된 신중도 가운데 하나이다. 권형진기자



수원포교당 불자들이 성도절 전날인 9일저녁 금강보탑 주변을 돌며 뭇중생들의 깨달음을 서원하고 있다.

## “부처님 깨달음으로 세상 무명 밝혀”

수원포교당, 탑돌이 등 성도절 전야행사

고타마 싯타르타가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신 날(성도절, 음력 12월 8일) 전날인 9일 저녁 6시, 수원포교당(주지 성관 금강보탑 주변)에는 ‘깨달음의 등’이 밝혀졌다. 영하의 쌀쌀한 나이에도 춥불을 든 200여 명의 불자들은 금강보탑 주변을 돌며 “이 한 개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못한 중생들의 무명번뇌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발원했다.

전야행사는 탑돌이에 이어 저녁 7시 30분부터 불교문화원 3·4층 만불보전으로 장소를 옮겼다. ‘불자음악인 작은 음악회’가 열린 두 시간 동안 만불보전은 박수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수원포교당 가뽏기가 어머니합창단과 남성 사자후합창단, 소리꾼 한승석(국립창극단원), 불자가구 나진아 등이 출연한 음악회는 벌써 17번째 이어져오는 행사. 찬불가와 클래식, 재즈와 판

소리가 어울려 성도절을 기쁨으로 맞았다.

주지 성관 스님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불교가 시작됐고, 부처님 오신 날, 출가절, 열반절 등도 생겨났다”며 “기쁨과 환희심으로 이 날을 찬탄하며 물려섬 없는 정진으로 부처님처럼 깨달음에 이를 것을 새롭게 발심하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밤 10시 30분, 시끌벅적했던 만불보전은 다시 원래의 엄숙함 속에 빠져들었다. 대신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하는 절야 정진 기도가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이어졌다.

10일 불교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수원포교당뿐 아니라 전국 사암에서는 전날부터 절야정진과 기도법회 등으로 이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권형진 기자